

민족적자존심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는 위력한 정신적힘

최 금 춘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 민족의 존재와 발전을 떠나서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의 생명을 담보하고 빛내이는데서 민족적자존심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이 강한 민족은 불패이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무력합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9권 461페이지)

인류력사는 민족적자존심에 의하여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된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이 과정에는 민족적자존심이 강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다른 민족에 동화된 민족도 있었고 강압적으로 병합된 민족도 있었다. 력사는 민족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운명적인 문제에서 커다란 작용을 한것이 바로 민족적자존심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족이 자기 존재와 발전을 이룩하려면 자기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리익, 그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강한 의지와 자각, 민족적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민족적자존심을 가져야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그 존엄을 침해하고 유린하려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과 비타협적으로 싸워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생존을 유지할수 있다.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민족적자존심이 없이는 제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수 없고 민족의 독립과 존엄을 지킬수 없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민족적자존심은 자기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이며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라고 말할수 있다.

민족마다 력사와 문화, 생활풍습과 특성은 각이하지만 자기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려는 것은 모든 민족의 공통된 념원이고 지향이다.

그러나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그 누가 지켜주거나 빛내여주는것이 아니다. 자기 민족을 남만 못지 않게 발전된 민족으로 되게 하려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을 가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족적자존심은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못하지 않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발현되는 민족자주정신이다. 그러므로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져야 자기 민족의 생명을 지킬수도 있고 끝없이 빛내일수도 있다. 민족적자존심이 없이는 어느 민족도 번영할수 없고 자기 존재 자체도 유지할수 없다. 민족의 흥망성쇠와 그 불패성은 민족적자존심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다.

민족적자존심이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는 위력한 정신력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게 하는 힘이기때문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이라는것은 민족이 민족으로서 존재하고 발전할수 있게 하는 근본성질, 본질적속성이 자주성이라는것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존재와 발전, 그 운명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성질이다.

매개 민족이 자주적인 사회생활단위, 독자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며 발전시켜나가려는 성질,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자신의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속성이 바로 자주성이다.

자주성이 없는 민족은 생명이 없는 민족과 같다. 자주성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고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이 있다.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민족적자존심을 내세우는 문제와 직결되어있다. 혁명실천에서 자주성은 민족적자존심에 의하여 담보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의 옹호고수이자 곧 민족적자존심의 과시이다.

민족적자존심을 건드리는것을 추호도 참을수 없는 모욕으로 감수하며 남에게 자존심을 굽히는것을 최대의 치욕으로 여기는 사상감정이 없다면 자주성을 유린당해도 투쟁할 수 없다. 자기 민족의 존엄을 침해하려는데 대하여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것도 민족적자존심에서 우러나오고 어떤 환경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것도 민족적자존심의 발현이다. 결국 매개 민족의 자주성이 얼마나 굳건히 지켜지는가 하는것은 민족적자존심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데 달려있다.

현시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의 힘의 대결이며 사상과 의지의 대결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덤벼들 때에는 그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상적, 군사적 힘으로 단호히 맞서고 팔라주머니를 흔들며 유혹하려 할 때에는 제힘으로 살아갈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투지로 자기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해나가는데가 것이 혁명하는 인민의 본때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약탈적본성을 보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에게 기대를 거는것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평화》니, 《원조》니 하며 떠들어도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수 없으며 또 그런 전례는 있어본적도 없다. 있다면 병주고 약주는 식의 지배와 예속, 약탈의 울가미뿐이다.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나라, 민족, 인민에게는 제국주의자들의 몽둥이정책도, 유화정책도 맥을 추지 못한다. 민족적자존심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게 하는 강력한 정신적힘이다.

민족적자존심이 나라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는 위력한 정신력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자기의 고유한 민족성을 고수해나갈수 있게 하는 힘이기때문이다.

민족성은 민족의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매개 민족에게는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성이 있다.

민족성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그 민족이 지니고있는 민족정신 즉 민족의 녀이다.

민족의 녀, 민족의 얼은 민족적의식, 민족의 심리전반을 지배하는 정신으로서 그것은 민족성원특유의 사고와 생활방식, 감정과 정서를 규제하며 특히 자신은 죽으나사나 자기겨레의 한 성원이라는 자각과 민족성원으로서의 자신을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를 간직하도록 한다.

민족의 녀으로서의 민족정신은 민족의 근본리익,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민족공동의 요구를 반영한 사상의식으로서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옹호하며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려는 사상감정이며 의지이다.

민족성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민족적기질, 감정과 정서, 관습과 세태풍속 등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 도덕과 풍습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이다.

민족이 살아 존재하고있다는것은 곧 민족성이 살아있다는것을 말한다. 한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성이 사라지는것보다 더 엄중한 사태는 없다. 잃었던 령토는 다시 되찾을수 있지만 사라진 민족성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한번 남에게 동화되게 되면 그 민족의 력사는 끝나게 되며 그 민족은 사멸되는것이 법칙이다.

민족적자존심이 높지 못하면 자기의 고유한 민족성을 유지할수 없으며 다른 민족에게 예속되거나 동화될수 있다.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닌 인민은 민족성을 끝까지 고수해나가며 민족의 영원한 존속과 무궁한 발전을 이룩해나간다. 민족적자존심은 자기 민족에 대한 열렬한 애착심과 자부심에 기초하여 발현되는 사상감정이므로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인민일수록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보존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된다.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정책은 오늘 《세계화》의 구호밑에 절정에 이르고있다. 미제는 지금 《미국의 가치관, 도덕관, 생활양식이 유일한 기준이며 그 어느 민족도 미국이 건설하려는 지구적세계에서 배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지난날의 제국주의는 몇개의 자기의 식민지에서 민족동화정책을 실시하였다면 오늘 미제는 전세계를 다 동화시키려 하고있다. 현대적인 과학기술까지 총동원하여 감행되는 미제의 민족말살책동의 화살은 발전도상나라이건, 발전된 나라이건, 아메리카는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나라이건, 유럽나라이건 가리지 않는다.

미제의 민족말살책동이야말로 지구상의 모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천인공노할 인류적죄행이다. 미제의 악랄한 《세계화》책동에 의하여 오늘 인류앞에는 민족이 민족으로서 살아 남아있을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모든 민족들이 민족적자존심을 높이 발휘할 때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민족말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족성을 튼튼히 고수해나갈수 있으며 민족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민족적자존심이 나라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는 위력한 정신력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융성번영을 담보하는 위력한 힘이기때문이다.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투쟁의 주체는 자기 민족이다. 매개 민족이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이 지니고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과 재능을 높이 발양할 때 민족의 강성부흥을 이룩할수 있다. 남을 쳐다보거나 남의 덕을 바라다면 언제 가도 자기 민족을 문명하고 발전된 민족으로 만들수 없다.

민족적자존심에는 자기 민족의 힘과 지혜를 믿고 그에 의거하여 민족의 부흥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애국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민족적자존심이 있어야 분발하여 일떠설수 있다. 애국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다. 자기 조국의 어느 한 분야도 뒤떨어지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남보다 앞서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심장을 끓이며 힘과 지혜를 바쳐가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이다. 민족적자존심을 지닌 참다운 애국자들의 대부대가 있으면 나라와 민족은 강해지고 끊임없는 융성번영의 길을 걷게 된다.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개척해나가는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매개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약소민족을 강대하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되게 하고 뒤떨어진 인민을 가장 선진적이며 발전된 인민으로 되게 하는것이 민족적자존심이다.

민족적자존심이 민족의 자주권, 생명을 담보하는 위력한 힘이라는것은 최근시기 여러

나라들에서 빚어진 참상이 남긴 교훈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미제의 독단과 전횡, 오만성에 의하여 일어난 이라크전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나라의 자주권은 높은 민족적자존심에 의해서만 지켜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굴욕적인 양보는 곧 죽음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높은 민족적자존심에 의해서만 담보될수 있다.

우리 민족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며 우리 인민은 앞서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게 된다는 비상한 자각과 절대로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놀리우지 않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이 땅우에 그 어떤 원썩도 감히 건드릴수 없고 그 누구도 숙볼수 없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한 민족적자존심으로 이 땅우에 로동당만세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려퍼지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